

구윤철 부총리,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주재, ASEAN+3 재무장관회의, ADB 연차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재, ASEAN+3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5.2(토) 오전 출국한다. 또한, 구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아시아개발은행(ADB) 총재,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및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(제2장관)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.

[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주재 및 ASEAN+3 재무장관회의 참석]

먼저, 구 부총리는 5.3(일)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. ASEAN+3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동 회의에는 한중일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하여 최근 중동 전쟁 전개에 따른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, ASEAN+3 역내 금융협력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다음으로 구 부총리는 ASEAN+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. 본 회의에는 아세안 및 한중일 14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하여, 국제통화기금(IMF)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ASEAN+3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)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. 최근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위험요인 등 세계·역내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, 역내 금융안정망(CMIM*) 강화 등을 위한 금융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※ 아세안 11개국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동티모르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: 아세안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[ADB 연차총회]

아울러, 5.4(월)~5(화) 양일간 제59차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가 개최된다. 구 부총리는 거버너 총회(비즈니스 세션)에 참석하여 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ADB의 역할 및 회원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제언할 예정이다.

※ 주요 출장결과는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< ADB 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	곽소희	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	안영환	(ynghwn@korea.kr)
< ASEAN+3 / 한중일>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심승현	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변재만	(byun221@korea.kr)